

기관돋보기 | 송덕꿈터

훈련을 넘어, 취업으로 이어지는 꿈

2020년 10월 문을 연 충주시 금가면에 위치한 송덕꿈터(원장 박용선)는 개소 6년 차의 젊은 시설이지만,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이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직업적응훈련시설이다. 30명의 이용인 중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 이곳은 제과제빵, 바리스타, 사무행정, 요양보호사 자격과정 등 개인별 특성에 맞춘 직무훈련과 현장실습을 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5년 첫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전 영역 A 등급을 받으며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고, 2026년에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전문교육과정 참여자 중 4명이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냈다.

“훈련하는 시설”을 넘어 ‘취업으로 연결하는 시설’로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송덕꿈터.

이번 박용선 원장과의 인터뷰에서는 개소 이후 걸여온 발전취업과 취업 연계 성과, 현장에서 마주한 두 가지 고민, 그리고 발달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들여다본다.

〈편집자주〉

2020년 10월 문을 연 송덕꿈터는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이다.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본 태도와 기초적인 직무수행 역량, 대인관계 및 사회적응 기술을 단계적으로 익히며, 개인별 특성과 강점에 맞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제과제빵, 바리스타, 사무행정, 요양보호사 자격과정 등 다양한 직무훈련과 현장실습을 통해 훈련생들이 실제 작업환경을 경험하고, 보호작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30명의 이용인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0% 이상



송덕꿈터 직원 단체사진.

송덕꿈터, 장애인 맞춤 직업훈련부터 현장실습·고용까지 지원 바리스타 취업부터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합격까지 성과 이어져

이 발달장애인이자.

개소 이후 송덕꿈터는 사회복지시설습기관 선정, 직업체협단 운영, 지역사회·대학과의 업무협약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2024년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대형버스 구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2025년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금가면에 위치해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던 이용인들의 이동 편의와 안전이 크게 개선되면서 기관 운영의 안정에도 기여했다.

아울러, 2025년 첫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는 전 영역 A등급을 달성했다. 2026년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전문교육과정’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인 현장중심 직업훈련 ‘현장 ON, 나의 JOB ON’을 통해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의 폭을 넓히고 있다.

박용선 원장은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법인의 지속적인 지원, 직원들의 책임감 있는 협력,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자체의 훈련수당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꼽으며 “이용인과 지역사회의 필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시설을 운영해 온 것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송덕꿈터의 가장 큰 성과는 훈련을 마친 이용인들이 지역사회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꾸준히 마련해왔다는 점이다. 바리스타 직업훈련을 받은 이용인들은 자격증 취득 후 현장훈련과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을 거쳐 지역사회 카페 취업에 성

공해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

올해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지원으로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8월 말 기준 참여자 중 4명이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했다. 이는 발달장애인의 직업 선택이 단순 보조직무를 넘어 전문성을 갖춘 직업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 뒤에는 현장에서 마주하는 과제도 있다. 박 원장은 “시설의 설립 목적과 이용인의 실제 서비스 욕구 사이의 차이가 있고, 발달장애인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직업영역과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과제는 시설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공공기관·지자체가 함께하는 협력체계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훈련생의 참여와 성장을 지원할 실질적인 훈련수당과 함께, 현장훈련과 취업성공을 만들어내는 시설에 대한 인력 및 운영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기존 훈련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실제 수요가 있는 새로운 직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중심 직업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사람을 중심으로 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의 안정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송덕꿈터는 체계적인 교육과 실무 경험을 통해 직원과 기관이 함께 성장하고, 이용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으로 늘 함께할 것이다.



충북도가 4000만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와 한과세트를 충북광역푸드뱅크에 전달하고 있다.

충북도, 추석 맞아 식생활 취약계층 1억 지원

1285가구 농산물 꾸러미 전달... 사회복지시설 496곳에도 물품 지원

충북도가 추석을 맞아 도내 식생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꾸러미’를 전달하고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을 추진했다.

도는 4000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와 한과세트를 마련해 도내 푸드뱅크 이용 취약계층 1285가구에 전달했다.

꾸러미는 대파, 감자, 계란 등 3만원 상당의 8개 품목으로 구성했으며, 한과세트는 지역 농산물인 보은 대추와 충주 사과를 활용했다. 가공식품 위주가 아닌 친환경 농산물 등을 제공해 취약계층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먹거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도내 사회복지 생활시설 496개소, 생활자 1만4432명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위문활동도 추진했다. 시설별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한 물품을 파악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위문 물품은 김치, 물티슈, 화장지, 김, 국수, 비누 등 6개 품목 2811점으로 총 6000만원 상당이다. 충북도는 지역 농가소득 증대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물품을 중심으로 구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애인생산물 판로 확대에도 힘을 보탬 계획이다.



파밍하우스에 방문한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가족들이 베이킹 체험을 하고 있다.

청주 파밍하우스, 사회적 약자 베이킹 체험 운영

장애인·복지기관을 위한 특별한 힐링 공간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문화체험과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청주에 문을 열었다.

청주시 남이면에 위치한 ‘파밍하우스’ 우리밀 베이킹 체험장은 올해 4월 25일 개장하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과 사회복지시설·기관을 대상으로 우리밀을 활용한 베이킹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약 60평 규모에 최대 12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며, 휠체어 진입이 쉬운 넓고 쾌적한 공간을 갖췄다.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센터·특수교육기관·사회복지기관 등이 다른 이용객의 불편을 걱정하지 않고 기관 단독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파밍하우스에서는 90분 동안 머핀, 쿠키, 피자, 케이크 등을 직접 만들며 베이킹 전 과정을 체험한다. 재료를 만지고 반죽하고 꾸미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근육을 활용하고 집중력과 성취감도 높일 수 있다. 특히 평소 문화·여가체험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종사자에게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 복지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밍하우스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복지기관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운영하며, 참여자의 특성과 기관의 목적에 맞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덕꿈터 이용인이 바리스타 직업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송덕꿈터 이용인들이 제과제빵 직업훈련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고 있다.



이번 문화체험은 어디로 갈까?

60평 규모의 체험장을 우리 기관만 단독으로 사용

즐거운 나들이, 특별한 문화체험!

머핀·쿠키·피자·케이크 4가지 메뉴를 90분 동안 만들고 → 먹고 → 포장하고

넓은 대형 체험장 (60평 규모)

맛과 즐거움, 가성비까지

우리 기관만 단독 이용

편리한 주차 (30대)

체험 문의, 견적, 제안서 요청

010-7567-5131

청주 파밍하우스

파밍하우스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388-35

제천시, 농촌 의료공백 해소 민간 전문의 투입

수산보건진료소에 ‘협력의사’ 위촉… 12월까지 주 10시간 진료

제천시는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발생하는 농어촌지역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민간 전문의 투입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제천시보건소는 수산보건진료소에 민간 전문의를 ‘협력의사’로 위촉하고 한시적인 진료 지원 체계 운영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확대 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법적 제약이 완화되면서 지역 내 민간 개원의 등 전문 의료 인력이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시 간제 형태로 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지역 보건진료소는 그동안 주민들의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에 크게 의존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의대생 군 휴학 증

가와 복무 기간 차이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공중보건의사 수급난이 이어지면서 농촌지역의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천시는 주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내 의료자원을 활용하는 ‘협력의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에 수산보건진료소 협력의사로 위촉된 문승철 전문의는 오는 12월까지 매주 10시간, 하루 2시간씩 진료에 나선다. 전문의는 수산보건진료소에서 외래진료와 약 처방, 건강상담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협력의사 도입은 공중보건의사 부족 상황에서도 보건진료소의 기본적인 진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농어촌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간 확대

권역별 전담체계 전환… 아이돌봄 대기 감소

청주시는 양육 공백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2개소로 확대하고 권역별 전담체계로 전환한다. 시는 4일 임시청사 직지실에서 이장섭 청주시장, 박미영 청주시가족센터장, 김지현 청주시사회적기업주식회사 가온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복수지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단일기관 운영에 따른 서비스 대기 지연을 해소하고 지역별 수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는 밀착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주시는 박미영(오른쪽) 청주시가족센터장, 김지현 가온대표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지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의 신속성과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두 제공기관 모두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의 안전과 서비스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천군, 주거·돌봄 연계 고령자 주택 ‘행복 나눔의 집’ 개소

일상 생활·건강 관리·식사 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

진천군은 9일 고령자 돌봄 지원 주택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행복 나눔의 집’은 고령으로 주거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고령자 전용 돌봄 지원 주택이다. 진천 이월면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로 조성됐으며 병원 퇴원이나 요양시설 퇴소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군은 지난 7월 입주할 만 65세 이상 여성 어르신 3가구를 모집한 데 이어 이번 개소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입주와 서비스 제공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명식 진천군수를 비롯한 주요 내빈과



진천군 행복 나눔의 집 전경.

책임지는 든든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이 연계된 통합 돌봄 기반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유응모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단양군 의료협약병원인 서울세계로병원 의료진이 단양군보건진료원에서 무료진료 봉사를 하고 있다.

서울세계로병원·단양군, 무료 이동진료 실시

척추·관절질환 전문 의료진이 세심히 진단

단양군과 의료협약을 체결한 서울세계로병원이 지난 13일 단양군보건진료원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두 번째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이동진료는 지난해 첫 진료에 이어 다시 마련된 자리로 척추·관절 질환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전문 의료진의 진료와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세계로병원은 관절센터와 척추센터를 중심으로 전문 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으로 이날 전문 의료진이 직접 단양을 찾아 무료와 척추 등 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다. 진료는 질환의 특성과 원활한 상담을 위해 사전예약제로 진행됐으며 총 60명의 예약자 가운데 55명이 진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환자별 건강 상태와 질환의 정도를 면밀히 확인한 뒤 향후 치료 방향과 수술 필요 여부, 일상생활에서의 관리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며 적절한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이동진료는 전문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타 지역까지 이동해야 했던 군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에서 수준 높은 전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평소 병원 방문이 쉽지 않거나 치료를 미뤘었던 주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치료로 연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단양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세계로병원 의료진이 직접 단양을 찾아 군민들에게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진료가 그동안 치료를 미루거나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던 군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치료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시, 통합돌봄 대상 도내 발굴률 1위

6개월간 600명… 적극적 현장 발굴 및 특화서비스

충주시는 통합돌봄 시행 6개월 만에 신청자 600여 명을 발굴해 도내 발굴률 1위에 올랐다고 10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 등 서비스를 개인 욕구에 맞게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는 서비스다. 시는 적극적 사업 추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병원, 민간기관 등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해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 사업 초기부터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정 방문과 상담 등 현장 발굴에 집중한 결과다. 또 보건소의 방문 진료와 건강관리, 협력 병원의 퇴원 환자 연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병원에서 지역사회로 공백 없는 돌봄이 이어졌다. 시는 대상자 발굴과 함께 시민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총주형 특화 서비스 확대에도 주력하고 있다. 가사·식사·이동·동행 지원

과 방문 이미용·목욕,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 밀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안부 확인 서비스 ‘스마트365 돌봄지킴이’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보완하고 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종합적 조사와 지원 회의를 거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충주만의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 소이면, 난청 어르신 7가구에 초인등 설치

수호천사 연합모금사업으로 일상 속 불편 해소

음성군 소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호영·김재정)는 초인종 소리를 듣기 어려운 난청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협의체는 지난 14일 ‘2026년 수호천사 연합모금사업’의 하나

로 난청 어르신 7가구에 초인등을 설치했다. 초인등은 방문객이 초인종을 누르면 소리와 함께 불빛이 작동해 청력이 약한 어르신도 방문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이번 사업은 홀로 생활하거나

외부와와 교류가 적은 난청 어르신들의 일상 속 불편을 덜고 안전을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호영 공동위원장은 “난청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겪어온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되어 있으며,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한 단체

봉사단 혜택

활동재료 지원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관리
봉사활동 연계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정보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그냥드림’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

도서벽지·취약계층 ‘찾아가는 그냥드림’ 본격 가동
충북 보은·영동 사업장 개소 11개 시군 모두 운영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복지 잡한 소득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을 9월 중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한다.

이번 확대를 통해 현재 미참여 지역인 55개 시군구가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한다.

특히 경상북도 울릉군까지 사업에 참여하면서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어디에서나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충북에서도 9월 보은군과 영동군이 새롭게 개소하면서 도내 11개 시군 모두에서 ‘그냥드림’ 사업이 운영된다.

지난해 12월 전국 57개소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그냥드림’은 ‘선(先)지원 후(後)행정’ 방식으로 높은 호응을 얻으며, 현재 175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약 21만명의 국민이 그냥드림 코너를 이용했고, 이 중 4만4712명이 복지 상담을 받았으며, 기초생활수급 및 긴급복지지원 등 제도권 보호 체계로 연결

된 인원은 4437명에 달한다.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위기가구를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체계도 한층 촘촘해졌다.

이용자가 복지 상담을 거쳐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으로 연계 의뢰되는 비율은 시범사업 기간 46.4%에서 본사업 기간 54.8%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실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 연계율은 같은 기간 15.2%에서 25.1%로 높아졌다.

복지부는 전국 확대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그냥드림’을 본격 가동한다.

지역별 우수 사례를 토대로 마련한 3대 표준 모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읍면동복지 연계형은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차량으로 마을을 순회하며 물품을 전달하고, 그 자리에서 복지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신안



9월 새롭게 개소한 영동군 그냥드림 사업장에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섬과 외진 마을까지 ‘그냥드림’카로 직접 찾아가고 있다.

둘째, 지역자원 연계형은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민간 연결망(네트워크)을 통해 물품을 전달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지방정부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논산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운동네 배달’이라는 이름으로 이웃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웃을 직접 찾아가고 있다.

셋째, 공공기관 협력형은 지방정부가 우체국에 그냥드림 신청자 정보를 전달해 집배원이 배달과정에서 물품을 전하고, 위기 징후에 따라 대상자를 지방정부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부천시지은 지역 우체국과 협업체 ‘집으로 그냥드림’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그냥드림 사업 취지에 공감한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에 걸쳐 총 100억원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한국수출입은행·롯데지주·한국청과주식회사 등 국내 다양한 기업들과 전국의 상공회의소가 힘을 보태며 민간 후원금 누적 135억원을 달성했다.

지역별 그냥드림 코너의 위치와 운영시간 등 자세한 정보는 포털사이트에 ‘그냥드림’을 검색, 혹은 보건복지부(mohw.go.kr) 및 전국 푸드뱅크(foodbank1377.org)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청년문화패스’ 내년부터 19~34세로 확대

지원대상 약 28만명서 919만명으로 대폭 증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예산안에 기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청년문화패스’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4일 밝혔다.

내년부터 19~34세 청년이라면 공연·전시뿐 아니라 영화·도서·체육 활동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대상이다. 현재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20세 약 28만명을 대상으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9~34세 약 919만명으로 확대된다.

지원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수도권 청년에게는 1인당 연간 10만원,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15만원을 지원한다. 지역 청년에게 5만원을 추가 지원해 지역 내 문화 소비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사용 범위도 확대된

다. 기존 공연·전시·영화·도서 등에 더해 내년부터는 체육 활동에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사업 확대에 따라 관련 예산



청년문화패스 주요 내용.

도 크게 늘어난다. 청년문화패스 예산은 올해 361억원에서 내년 7925억원으로 약 22배 증가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필수’로 전환... 내달 12일부터 접종

70세 이상·면역저하자부터 순차적으로

질병관리청은 17일 그동안 임시예방접종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고 2026~2027월기 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전환은 코로나19 발생 동향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사항, 미국·일본·영국·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다음 달 12일부터 70세 이상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연령대별 순차적 접종을 시작하며 동일한 일정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접종받을 수 있다. 또한 12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도 다음 달 12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이번 접종에는 XFG 백신 484만 회분을 활용하며, 이전 절기와 동일하게 1회 접종(면역저하자 2회 접종)으로 완료한다.

다만, 12세 미만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이전 접종력에 따라 1회 또는 2회 기초접종이 필요하므로 의료진과 상담 뒤 접종해야 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에 모두 해당하므로 옮겨올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접종 기관 한번 방문으로 동시 접종받을 것을 권고한다. 2026~2027월기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의료기관과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 임신부터 자립까지 지원 강화

내년부터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6%까지 확대

성평등가족부는 2027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 6260억원보다 250억원(4.0%) 증액한 총 6510억원으로 편성했다.

2027년에는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임신 단계부터 양육 초기까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의료·주거 지원을 늘리고,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 등을 통해 양육비 이행 확보를 지원한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에서 68%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아동양

육비 수혜자는 25만7000명에서 27만명으로 3000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소득요건도 기존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 가구로 완화한다. 또한 임신 후기 3개월간 매월 23만원을 지급하는 ‘(가칭) 예비양육수당 지원’을 시범 도입한다.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가운데 경제선지능인에게 6년 30만원의 진단비에 더해 1인당 연간 70만원의 상담·

치료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출산지원시설 입소자의 의료비 지원 한도도 기존 1인당 연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346호에서 401호로 55호 늘리고, 보증금 지원 한도도 최대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한다.

양육비 선지급 및 법률지원 확대를 양육비 이행 지원도 강화한다.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소득기준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폐지된다.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선지급금 회수 체납정보를 국세청에 위탁·제공하고, 국세청이 직접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품목 확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10월부터 ‘एको이몰’ 민원창구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의 필수 공급품목을 55개에서 67개로 확대하고, 전국 공급업체 29곳을 대상으로 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사업 시행 이후 접수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품목 선택 폭과 민원 처리, 공

급 관리 체계를 함께 손질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8월 27일 품목선정위원회를 열고 호두, 브로콜리, 갯잎 등을 필수 공급품목에 추가했다. 지방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판매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품목을 추가하거나 조정하

며, 공급처 확보가 어려운 업체에는 친환경농업협회의 생산·공급 정보를 제공한다.

사업 적용 온라인시스템에 에코이몰에는 10월 초 대표 민원 접수 창구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상품 관련 문의를 공급업체별로 접수해야 했던 절차를 한 곳으로 모아 꾸러미 관련 민원을 통합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정부는 9월부터 29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기준과 공급업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지방정부, 공급업체, 친환경농업협회가 참여하는 사업 점검회의도 매월 열린다.

지역별 신청과 공급 일정은 에코이몰이나 지방정부 공지에 확인할 수 있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긴급통신 전화 지정

요금 미납으로 휴대전화 끊겨도 이용 가능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과학교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동으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긴급통신용 전화 지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은 경제적 사정으로 휴대전화 발신이 정지돼 109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 누리소통망(SNS)에 접수된 것을 계기로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의 지정 요건인 ‘국민

현재 109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로, 발신자에게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수신자 부담 전화다. 다만 112·119 등과 달리 긴급통신용 전화로 지정돼 있지 않아 통신요금 미납 등으로 발신이 제한된 경우 이용하기 어려웠다.

과기정통부는 109가 긴급통신용 전화의 지정 요건인 ‘국민

안전 보호’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특히 고시 개정에 통상 3개월 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통신사 등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시스템 개발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고시 개정 전인 10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말 제조사도 휴대전화 긴급전화 목록에 109를 추가해 잠금화면에서도 109로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09 운영부처로서 긴급통신용 전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에서는 복지+디자인+주택의 개념을 통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와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체험센터

구성

주택체험관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거주공간 설계를 통해 모두가 불편함 없는 생활 공간 체험

유디체험관

모두를 위해 디자인 된 UD적용 일상용품 이해

휠체어 체험관

이동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휠체어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주행 체험

교육 신청하기 >

043-234-0840~2

“사회복지시설 수탁심사기준 개선해야”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 포럼
공통 평가지표·간소화 필요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수형) 부설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소장 이순희)는 지난 11일 ‘사회복지시설 수탁심사기준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과정에서 현장이 겪는 어려움과 제도적 쟁점을 살펴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탁 심사 기준 마련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를 비롯해 청주시, 청주시의회, 관련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주제발제와 지정토론, 종합토론 및 참석자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에서 유응모 오송종합사회복지관장은 “청주시 사회복지시설 위탁사업에 대한 실태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위탁 현황과 시설별 수탁 심사 기준을 비교·분석하고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는 ‘사회복지시설 수탁심사기준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어 안종태 충청북도공무원리제육관장은 ‘충청북도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수탁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관련 법령과 조례, 위탁 운영 사례 등을 살펴보고 청주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는 한동순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장, 민경아 청주시 복지정책과장, 김현숙 가경노인복지관장이 참여해 의회·행정·현장의 입장에서 수탁 심사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서는 시설과 담당 부서에 따라 다른 수탁 심사 기준과 해석 차이를 줄이기 위한 공통 평가지표 마련과 기준 정비, 보건의복지부 평가·성과평가·재

위탁 심사 등 반복되는 평가와 제출서류의 간소화 필요성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법인 전입금의 평가방식, 이행보증보험과 근로조건 관련 법인의 부담, 위탁기간과 재계약 기준의 예측 가능성 확보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을 단순한 관리·감독의 대상이 아닌 지역의 공공복지를 함께 수행하는 협력적 파트너로 바라보고, 행정과 현장이 신뢰를 바탕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논의된 과제를 제도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청주시와 의회, 사회복지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구조와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위·수탁 표준안 및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안됐다.

이순희 소장은 “이번 포럼은 사회복지시설 위·수탁 과정에서 현장이 경험해 온 어려움을 공론화하고 행정과 의회, 현장이 함께 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복지 현장의 주요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주시사회복지연구소는 지역 사회복지 현안과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연구포럼과 좌담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음성 꽃동네, 교황 축복에 빛난 사랑의 ‘50년’

설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나눔·봉사 의미 되새겨



꽃동네 설립 50주년 기념식이 열린 가운데 조반니 가스파리(왼쪽) 주한 교황대사가 오웅진 신부에게 교황 축복장을 전달하고 있다.

음성군 꽃동네가 설립 50주년을 맞아 8일 기념식을 열고 지난 5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나눔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은 이날 꽃동네 해외 19개국 성직자와 관계자, 전국 신자 및 후원회원 등 4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미사를 봉헌했다. 조반니 가스파리 주한 교황대사, 윤공희 대주교, 이수성 전 국무총리 등 내빈 200여명도 함께했다.

꽃동네는 1976년 오웅진 신부가 무극천 다리 밑에서 결인들을 돌보던 최귀공 할아버지를 만나면서 시작했다. 오 신부는 최 할아버지의 나눔에 감명받아 자신

의 재산으로 무극리 용담산 기슭에 ‘사랑의 집’을 마련했고, 같은 해 11월 결인 18명이 입주하며 꽃동네의 역사가 시작됐다. 이후 음성과 가평 등에서 노숙인·장애인·아동 등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며 나눔과 돌봄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입주 생활인은 2460여명으로 알려졌다.

재단 관계자는 “꽃동네 설립 50주년 기념식은 50년 전 초심을 되돌아보는 자리”라며 “모든 사랑이 존경받고 서로 존경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은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2026년 우리사랑 통합캠프’를 개최했다.

옥천군장애인복지관, 화합·교류의 장 마련

충북도내 12개 복지관 캠프

옥천군장애인복지관(관장 황명구)은 지난 9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간 옥천체육센터와 장령산자연휴양림에서 ‘2026년 우리사랑 통합캠프’를 개최했다.

우리사랑 통합캠프는 충북장애인복지관협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고, 도내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간 교류를 통해 소속감과 공동

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옥천군장애인복지관이 주관해 도내 12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과 직원 약 270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옥천체육센터에서 개회식과 명랑운동회를 진행한 뒤 장령산자연휴양림으로 이동해 공연을 관람하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황명구 관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에게 활기차고 건강한 문화체

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리사랑 통합캠프는 장애인 건강증진활동사업의 일환으로 충북도내 12개 장애인복지관이 함께 참여해 매년 다양한 교류와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또는 담당 부서(☎043-730-6750)로 문의하면 된다.

금성개발, 의료취약층 이동 검진사업 2억 후원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지원… 출장 차량 제작

금성개발(대표이사 신현창)은 8일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지회장 조경순)에 지역 의료취약계층 건강 관리를 위한 출장검진차량 제작비로 2억원을 후원하기로 했다.

이번 기탁식에는 금성개발 신현창 대표이사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민성 회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조경순 충북세종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 기탁 방식으로 전달된 후

원금 2억원에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출장 검진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최신 검진 장비를 장착한 이동검진 차량 제작에 사용될 예정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2006년부터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출장검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금성개발은 지난해에도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가족보건의원의 시설 환경개선을 위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가 8일 금성개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출장검진사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 2000만원을 후원한 바 있다.

신현창 대표이사는 “모두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업이 나눔에 앞장서야 사회가 밝아질 수 있다”고 후원 이유를 밝혔다.

조경순 지회장은 “지역사회를 향한 금성개발의 따뜻한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의 사랑방 ‘청주 꿈꾸라면’ 활짝

청주사회복지관 무료 운영
영양 간식·휴식 공간 제공

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관장 한전복)은 14일 ‘청주 꿈꾸라면’ 공유공간을 오픈했다.

‘청주 꿈꾸라면’은 ‘청주 아이들을 꿈꾸게 하는 라면가게’라는 뜻으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매주 월·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며, 라면과 두유, 견과류 등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영양간식을 제공한다.

VR 놀이공간과 보드게임, 휴식 공간도 마련했으며 친구 초대, 꿈자랑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복지관은 아이들이 공간을 편하게 찾아 자신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필요한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의 소통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도 라면이나 후원금 기부를 통해 ‘청주 꿈꾸라면’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공간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오픈식에는 초록우산 청주사회복지관 시설운영위원회가 함께했다.

김학민 운영위원장은 “우리 지역 아이들이 언제든지 편히 찾아와



청주 꿈꾸라면 내부 모습.

배를 채우고 꿈을 키울 수 있는 따뜻한 사랑방이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한전복 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아이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생계부터 돌봄까지… 2027년 복지의 문턱 낮춘다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취약계층 지원부터 돌봄·장애인·출산양육까지 폭넓게 강화 현장 중심 복지 확대하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도 개선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7697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 137조4949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4328억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메트 강화 ▲지역·필수요리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I)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편집자주〉

●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

1. 생계·의료·기초생활 보장 강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기준 중위 소득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인 6.7% 인상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5만5000원, 4인 가구 기준 13만9000원 인상된다. 또한 수급자가 중증장애인 약 2만가구를 대상으로 2027년 하반기부터 부양의무자 규정을 폐지해 보장 수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역시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약 3만명을 추가 수급권자로 확대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기본진료비 지원을 강화해 약 13만8000명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다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수준에 따른 하위 차등지급을 348만명에게 적용하고, 부부감액 비율을 축소해 234만명의 급여 수준을 높인다. 아울러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등 약 11만명에 대한 지원도 반영한다.

장애인연금은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1급·2급 전체와 3급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급) 전체로 대상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립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사업 참여 규모를 7만5000명까지 3000명 확대하고, 참여자의 유형별 급여도 3.7% 인상한다.

2. 빈틈없이 선제 지원하는 적극적 복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우선드림 긴급복지’가 추진된다. 위기징후가 포착되면 읍·면·동 현장에서 신규 생계지원금 30만원을 우선 지급해 급박한 상황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국민의 기본적인 먹거리 보장을 위한 ‘그냥드림’ 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한다. 푸드뱅크·푸드마켓 등을 중심으로 운영 규모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확대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기 위한 발굴 체계도 강화한다. 지역사회 공무원과 이웃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위기정보를 연계·분석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에 참여한 지방정부와 공무원, 지역주민의 성과를 포상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읍·면·동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처음 방문해 상담할 때에는 식료품 세트 등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2만5000원 상당의 ‘희망드림 꾸러미’를 1회 지원해 초기 상담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생활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금융연체 등 위기정보를 활용한 ‘고립통합대응시스템’을 통해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3. 자살예방·중독치료 등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자살예방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콜센터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관련 상담 인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AI 기반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온라인상 자살 유발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비로 8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24시간 자살 시도·사망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가칭 ‘국가자살대응실’ 신설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자살 관련 상황을 상시 파악하고 위기 발생 시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와 회복 지원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약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전담 치료 연계와 회복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마약류 중독 치료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2억원을 투입하며,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도 기존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 7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아울러 권역별 치료보호기관도 11개소에서 13개소로 확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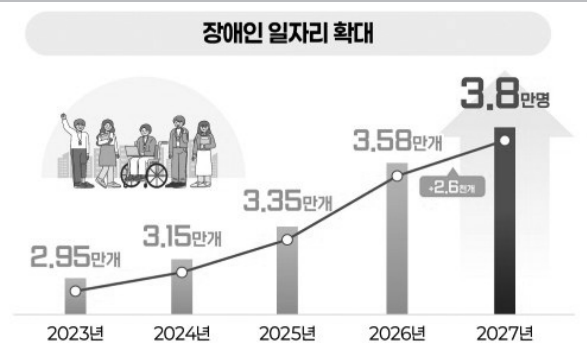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과 관리체계도 보완한다. 비자의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의 병원 이송체계를 개선하고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적절한 치료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당 사업에는 1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국민 모두의 돌봄 확대

1. 통합돌봄 현장 안착

지역별 돌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지역특화서비스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다. 기존 노인 중심이었던 서비스 대상자를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역과 인구감소지역에는 가산 지원을 적용한다. 또한 시·군·구에 대한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10억원에서 16억원으로 인상하고, 관련 예산을 667억원 확대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복합적인 수요가 높지만 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기관이 부족한 인구감소지역에는 ‘취약지 돌봄센터’를 새롭게 설치·운영한다. 공립 돌봄센터 30개소를 설치해 지역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개소당 1억원에서 최대 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통합돌봄 체계도 마련한다. 정신질환자 통합



돌봄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교육비 등을 신규 지원해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과 치료, 돌봄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새롭게 투입한다.

2. 일자리부터 돌봄까지 안심노후 지원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소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형·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 2만8000개를 확충한다. 이에 따라 노인일 자리는 기존 115만2000개에서 118만개로 확대된다. 또한 노인일자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고예방과 위험성 평가 등을 담당하는 안전전담인력 728명을 추가 배치해 기존 613명에서 1341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안심서비스도 확대한다.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구조·구급을 지원하는 가정 내 ICT 장비 설치를 기존 29만7000가구에서 31만7000가구로 2만가구 확대해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상시적인 보호체계를 강화한다.

치매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치매관리체계도 보완한다. 치매안심재난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인력을 29명에서 61명으로 확대하고, 치매환자의 재산관리와 권리 보호를 지원한다.

아울러 치매공공후견지원 활성화를 위해 광역치매센터 인력을 기존 130명에서 147명으로 확충하고, 후견인 활동비용 지원 대상도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3. 장애인과 가족의 삶까지 두텁게 지원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기본급여 대상자를 9000명 확대해 기존 14만명에서 14만9000명으로 늘리고, 시간당 단가도 4.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시간당 단가는 기존 1만7270원에서 1만7960원으로 오른다. 또한 2027년 7월부터는 65세가 된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개인의 필요에 따른 서비스 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일자리도 2600개 확대한다. 기존 3만6000개에서 3만8000개로 늘리며,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해 장애인의 직무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넓힌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과 활동 지원도 강화한다. 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자를 1만1500명에서 1만3000명으로,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를 1만5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서비스도 확대해 개인별 특성과 필요에 맞는 돌봄을 제공한다.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를 기존 11만명에서 11만6000명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아동 가구의 연간 돌봄시간을 1200시간에서 1320시간으로 늘린다. 부모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휴식지원 대상도 1만6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수당을 새롭게 신설해 영아는 시간당 2000원, 유아는 시간당 1000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4.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100%로 높인다. 2026년 준수율 98.2%에서 100%로 상향해 가이드라인에 따른 인건비가 전액 반영되도록 253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특히 생활복지사·생활지도원 등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를 추가로 인상해 초기 경력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63억원을 추가 편성하며, 여기에 가이드라인 100% 적용과 저연차 종사자 처우개선 내용을 반영한 시설별 인건비 단가에 공통처우개선을 3.9%를 적용해 총 377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시설도 확대한다. 기존 대상에 학대피해장애인쉼터와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추가해 적용 시설을 기존 10개소에서 12개소로 확대하고, 해당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보조사업에 종사하는 인력 가운데 업무 강도가 높은 10개 직군에 대해서는 공통처우개선을 3.9%에 1%포인트를 추가 적용해 총 4.9% 인상한다. 이를 위해 211억원을 추가 투입해 고강도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인력의 처우를 한층 개선할 예정이다.

● 인구구조변화 대응

1. 출산·양육패키지 지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보다 쉽고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첫탄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통합·확대한 ‘출산·양육패키지’를 도입한다. 기존에 여러 제도로 나뉘어 있던 급여체계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지원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다자녀 가구와 지방 거주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제도는 2027년 7월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출산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아이맞이지원금’도 새롭게 신설한다. 기존 첫탄남이용권과 부모급여를 통합해 1000만~2000만원을 1년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며, 자녀 수가 많거나 지방에 거주할수록 지원금액이 확대되도록 설계한다.

아동수당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한다.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기존 아동수당보다 2~3배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해 매월 20만원을 지급하고, 0~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2. 산모부터 아이까지 돌봄 지원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출산과 영유아 양육까지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남녀 가임력 검사비용 지원 대상은 기존 36만명에서 40만명으로 4만명 늘리고,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도 13개소에서 15개소로 확충한다. 전문 상담인력 역시 기존 48명에서 63명으로 15명 증원해 난임과 임신·출산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치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가 출생했을 때 의료비 지원을 확대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필요한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25억원 확대한다.

저소득 가정의 영아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 지원 대상은 기존 9만6000명에서 13만명으로,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1400명에서 1700명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예산도 2026년 514억원에서 2027년 정부안 594억원으로 80억원 확대한다.

방학 기간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학 중 초등 틈새돌봄’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돌봄서비스와 점심·저녁 식사를 제공하며, 운영기간을 기존 5주에서 12주로 확대해 긴 방학 동안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줄일 계획이다.

● 모두가 누리는 보건복지

1. 복지·돌봄 AI 대전환을 위한 투자 강화

돌봄기술이 연구개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돌봄 현장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증과 사업화, 현장 진입까지 연계하는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제도와 현장, 기술이 서로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재가돌봄 분야에서는 자택에서 돌봄을 받는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을 개발·실증하고, 시설돌봄 분야에서는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원 솔루션을 개발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돌봄로봇의 실증과 도입을 통해 ‘사람과 로봇이 함께하는 통합 돌봄환경’도 구축한다. 초고령화에 따른 복지·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24시간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복지관 등 지역사회 돌봄현장 12개 거점에 돌봄로봇을 배치하고 스마트홀과 연계한다. 대상자 발굴부터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며, 이를 위해 120억원을 투입한다.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현장에도 로봇을 도입한다.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10개소와 장애인거주시설 5개소에 운반·배식 등 목적별 돌봄로봇을 배치해 돌봄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는 150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인간의 동작 등 실제 돌봄 현장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가공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돌봄로봇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데 107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돌봄 현장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고 실제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복지·돌봄 분야의 데이터 기반도 새롭게 구축한다. 국민이 자신의 복지·돌봄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돌봄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며, 이를 위해 2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공공·민간 시스템과 AI·IoT 서비스 등을 연계해 분절돼 있는 돌봄 데이터를 통합하고 유통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21억원을 지원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광장



이 미 소 라

사랑의울타리지역아동센터장

“햇빛만 계속 쏘아지면 그곳은 사막이 된다”

마음에 오래 머물던 이 문장을 떠올릴 때마다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과 매일 그 결을 지키는 선생님들의 얼굴이 생각난다. 따뜻한 햇빛은 생명을 자라게 하지만, 쉼 틈 없이 내리쬐는 별은 결국 땅을 매마르게 한다. 사람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사랑과 관심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잠시 머물러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늘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센터 문을 열고 들어오는 표정은 날마다 다르다.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날이 있는가 하면, 말없이 가방을 내려놓고 한쪽에 앉는 날도 있다.

사막에도 그들이 있다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거나 집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던 날, 아무렇지 않은 척 씩씩하게 행동하지만 눈빛을 보면 오늘 하루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다.

숙제를 미루거나 친구에게 뽀족한 말을 하는 아이를 보면 행동부터 바로잡아 주고 싶어진다. 하지만 잠시 기다려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 행동 뒤에 숨어 있는 마음이 보일 때가 있다.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서툰 표현일 수도 있고, 하루를 견디느라 마음의 힘을 모두 써버린 탓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에게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된다. 공부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마음 편히 숨을 고를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따뜻한 밤 한 그릇을 편하게 먹고, 유난히 지친 날에는 “오늘 무슨 일 있었니?” 하고 먼저 물어봐 주는 어른이 있는 곳,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해보자”라고 말해주는 곳이면 좋겠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일은 생각보다 많은 마음의 힘을 필요로 한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하루는 아이들의 일상과 안전을 돌보는 일에서 끝나지 않는다. 학습과 생활지도, 보호자 상담, 급식 관리, 행정과 회계, 사업 계획서와 결과보고서, 평가 준비까지 이어진다. 위기 상황이 생기면 학교와

가정, 관계기관을 오가며 대응해야 하고, 퇴근 후에도 마음에 걸리는 아이가 있으면 쉽게 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흔히 사명감과 헌신을 이야기한다. 물론 사람을 돌보는 일에는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무게를 개인의 희생과 인내만으로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 힘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만이 좋은 사회복지사의 모습도 아니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헌신의 증거도 아니다. 지칠 때 잠시 멈추고,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역시 현장을 오래 지켜가기 위해 필요한 힘이다.

종사자가 지치면 아이의 작은 표정과 마음을 살필 여유도 줄어든다. 평소라면 조금 더 기다려 줄 수 있었던 행동에도 마음이 급해지고 돌봄의 온도도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종사자의 심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질과도 연결되어 있다.

센터를 책임지는 나 역시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나는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에게 편안한 그들이 되어주고 있는가. 쏠아지는 업무 속에서 고마운 마음보다 부족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지는 않았는지, 사정을 충분히 듣기 전에 결과와 마감부터 재촉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센터장도, 사회복지사도 결국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는 “쉬어 가면서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그 말을 하지 못하는 날도

복지칼럼

목소리로 짓는 장애인가족의 미래



김 순 애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장

15년 동안 제천의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장애인당사자와 가족들을 만나며, 나는 복지가 결국 필요한 것을 연결하는 일에서 시작해 원하는 삶을 함께 준비하는 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자주 나누는 대화에서 “김순애 센터장님은 모르는 기관이 없어요”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대답은 한결같다.

“저도 다 몰라요. 다만 어느 곳에 연결해야 하는지는 방향을 좀 압니다”

돌이켜보면 이 짧은 대답 속에 지난 15년간 현장에서 익힌 장애인복지의 한 모습이 담겨 있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과 자원, 기관을 찾아 서로 연결하고 그 연결이 당사자와 가족의 삶에 실제 정보 전달 및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제천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는 세상에 하나뿐인 ‘자원연계 대지도’가 늘 펼쳐져 있다. 지역사회에서 연계할 수 있는 사업과 자원을 비롯해 권익 옹호, 주거·자립, 전국 단위 협회, 장애인 취업지원, 민관협력, 안전, 교육, 건강, 상담, 물품지원 등 다양한 자원이 담겨 있다.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필요와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 지역사회 자원을 한 장의 지도로 담았다.

그러나 15년의 현장에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았다.

‘장애인가족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당사자와 가족들은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센터 개소 이후 지금까지 반복해서 마주한 절박한 질문이 있었다.

“부모가 더 이상 돌볼 수 없게 되면 우리 아이는 어떤 사회에서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은 어느 한 가정만의 고민이 아니다. 오랜 시간 돌봄을 감당해 온 부모의 나이가 들어가고 가족의 돌봄 여력이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많은 장애인가족이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질문이다.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번 하반기 외부 지원사업으로 가족중심 실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전문위원, 부모, 사회복지사가 참여하는 집단면접(FGD)을 시작으로 100가정 설문조사와 가정방문, 상담 및 후원품 나눔을 병행하고 있다. 이는 조사와 지원을 분리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삶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다. 기존 사례관리가 사후적 지원연계였다면, 이번 연구는 예방적·미래지향적 실천으로 확장하여 15년의 경험을 정책과 실행이라는 다음 단계로 연결하는 과정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질문의 변화다.

과거의 질문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니까?”였다면, 이제는 “앞으로 어떤 삶을 준비하고 싶습니까?”라고 묻고자 한다.

장애인당사자가 앞으로 어디에서, 누구와 살아가고 싶은지, 가족은 당사자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지, 주 돌봄 역할을 담당해 온 가족이 지속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또한 주거와 경제, 건강과 일자리, 교육과 돌봄, 여가, 지역사회 안에서의 삶까지 당사자 한 사람의 삶과 가족 전체의 미래를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가 보고서 한 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제천시의 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장애인가족의 삶을 책임 있게 지원해 온 센터의 역할은, 연구 결과를 2027년 사업 및 계획으로 연결하고 필요한 정책과 지역사회 협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결국 이번 연구가 만들어 가야 할 흐름은 분명하다. 조사하고, 분석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다시 평가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의 중심에는 장애인당사자와 가족의 삶이 있어야 한다.

한 가족의 목소리가 조사에 담기고, 그 목소리가 2027년의 사업으로 이어지며, 다시 지역의 장애인복지 정책과 실천으로 연결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한 사람의 삶이 조금 더 안정되고, 가족이 당사자의 미래를 일찍 준비할 수 있다면 이번 연구는 단순한 연구용역을 넘어서는 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15년 동안 우리는 어려움이 발생하면 해결하기 위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이제는 한 걸음 더 앞을 바라보려 한다.

어려움이 오기 전에 준비하고, 장애인당사자가 원하는 삶을 함께 설계하는 복지, 그것이 앞으로 제천시장애인복지 현장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또 하나의 방향이다.

오늘의 목소리가 조사에 담기고, 그 조사가 2027년의 계획이 되어 장애인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실질적인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현장의 목소리



김 한 결

청주시장애인단기돌봄센터 대리

청주시장애인단기돌봄센터는 보호자의 부재나 긴급한 돌봄 등 여러 이유로 일정 기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 이용하는 곳이다. 단기돌봄의 특성상 아동부터 성인까지, 장애 유형과 지원 필요 정도가 서로 다른 이용인들을 만나게 된다. 이용 기간도, 센터를 찾는 이유도,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도 모두 다르기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역시 같을 수 없다.

누군가는 말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또 누군가는 표정이나 몸짓으로, 때로는 우리가 ‘도전적 행동’이라 부르

는 모습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용인의 행동을 마주할 때면 자연스레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 이용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 행동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고자 이용인의 작은 변화를 세심히 살피고, 그때 그때 필요한 지원을 고민한다. 같은 활동도 누군가에게는 즐거움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어제 도움이 되었던 방식이 오늘은 맞지 않을 때도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시간과 공간을 달리해 보며, 이용인이 보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간다.

‘단기 돌봄’이라는 이름처럼 한 번의 이용은 짧을 수 있지만 이용인과의 관계까지 짧은 것은 아니다. 필요할 때마다 다시 센터를 찾는 이용인들을 만나며 한 사람의 모습을 몇 달, 몇 년에 걸쳐 지켜보게 된다. 지난번에는 어려워했던 일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지기도 하고, 반대로 익숙했던 모습에서 새로운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게 짧은 만남이 쌓이면서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 과정이 보이기 시작한다.

센터가 문을 연 지도 어느덧 4년이 되었다. 그동안 어린 시절부터 센터를 이용해 온 아동들이 자라는 모습을 결

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예전에는 어려워했던 활동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조금 더 분명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볼 때면 직원들은 “정말 많이 컸다”는 말을 나눈다. 오랜 시간 지켜본 만큼 작은 변화 하나도 반갑고 대견하다.

이용인의 변화가 언제나 한 방향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잡하던 것을 어느 날 어려워하기도 하고, 한동안 보이지 않던 행동이 다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럴 때 변화만을 놓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보다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도전적 행동이 나타나거나 행동의 강도가 높아질 때면 행동 자체만을 문제로 보기보다 다시 이유를 찾는다. 최근 주변 환경에 달라진 점은 없는지, 불편함을 주는 요인이 있는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욕구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함께 고민한다. 때로는 여러 번 방법을 바꾸어도 답을 찾지 못한다. 그럴수록 행동만 떼어 놓고 보기보다 그 전후의 상황과 감정, 주변 환경까지 함께 살펴보려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동료들이다. 한 직원이 발견하지 못한 모습을 다른 직원이 발견하고, 각자의

경험과 생각이 모여 새로운 방법이 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조금 기다려보면 어떨까?”, “이 환경이 불편했던 것은 아닐까?”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한 명의 이용인을 여러 시선으로 바라본다. 시도한 방법이 잘 맞지 않으면 다시 이야기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간다.

이런 시간을 보내며 도전적 행동 역시 단순히 ‘고쳐야 할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욕구를 전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가고 있다. 좋은 서비스란 모든 문제의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너머에 있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그 사람에게 맞는 지원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지난 4년 동안 이용인의 작은 변화에 함께 기뻐하고, 걱정되는 모습 앞에서는 “왜 그럴까?”를 함께 고민해 온 동료들이 있었다. 한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과 생각이 모였기에 조금씩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갈 수 있었다. 이 글을 빌려 그 고민을 함께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돌이켜보면 이용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동안, 우리도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단봄의 4년은, 함께 자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이용인의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함께 고민하며 단봄만의 답을 하나씩 찾아가고자 한다.



법률홈닥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상담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등



신청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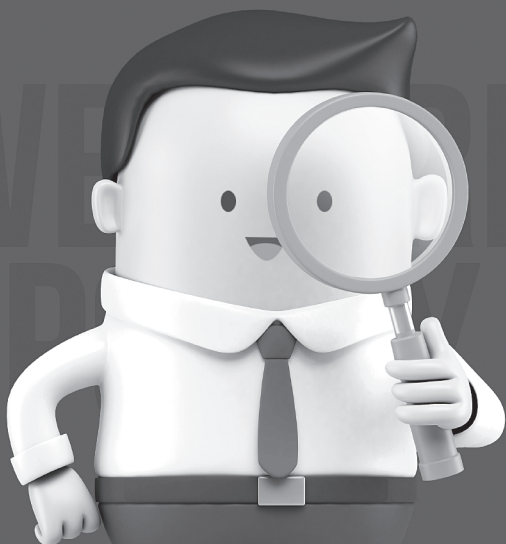
시 간 월~금 10:00~17:00 (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홈닥터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똑똑똑! 법률홈닥터입니다.

법률
홈닥터



이 달의 법률상식



신인경 변호사
(법무부 인권구조과)

Q. 경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람에게 속아 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을 믿고 1000만원을 지정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뒤늦게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미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2011년부터 시행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송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금이 입금된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사기계좌로 입금된 돈을 불과 몇 분 사이에 인출하기 때문에, 피해금이 사기범의 수중에 들어가기 전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금 환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찰청 112 콜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제도

터를 통해 피해 경위를 설명하면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사기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신분증 사본과 함께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이 이루어지면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이는 피해금이 들어 있는 사기계좌 명의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절차로, 2개월의 공고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은 소멸됩니다.

채권이 소멸되면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내에 환급금을 결정하고, 환급금이 결정되면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사기계좌의 잔액이 전체 피해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에 비례하여 환급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신속하게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동정

- **송덕재가노인센터**
▷ 센터장 이승한 / 7월 1일자
- **충북장애인종합복지관**
▷ 관장 김기용 / 8월 1일자
- **산남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박진홍 / 9월 1일자
- **청주상당노인복지관**
▷ 관장 김창수 / 9월 1일자
- **청주서원시니어클럽**
▷ 관장 권순오 / 9월 1일자
- **청주청원시니어클럽**
▷ 관장 박정희 / 9월 1일자
- **청주카리타스노인요양원**
▷ 원장 Fy: 주지옥 / 9월 1일자
-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 관장 장선에 / 9월 1일자
- **프란치스코의집**
▷ 원장 김학도 / 9월 1일자

인사동정 이용 안내

●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사이동(기관장 변경, 법인 내 이동 등)에 대해 게재를 원하시는 시설은 문의 바랍니다.
※043-234-0840 김세나 대리

지역사회봉사단

청주탑요양병원, 청주 성안동에서 의료봉사 활동 펼쳐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유응모, 이하 협의회) 소속 청주탑요양병원은 청주복지재단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펼치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청주탑요양병원 전문의료진은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청주시에 위치한 성안음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료봉사에서는 건강상담과 기초진찰을 비롯해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 등 일상생활 속 건강관리에 대한 맞춤형 상담을 제



공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관리 방법과 가까운 의료기관 안내 등 실질적인 건강관리 지원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되어 있는 2인 이상 자원봉사자로 기술 및 재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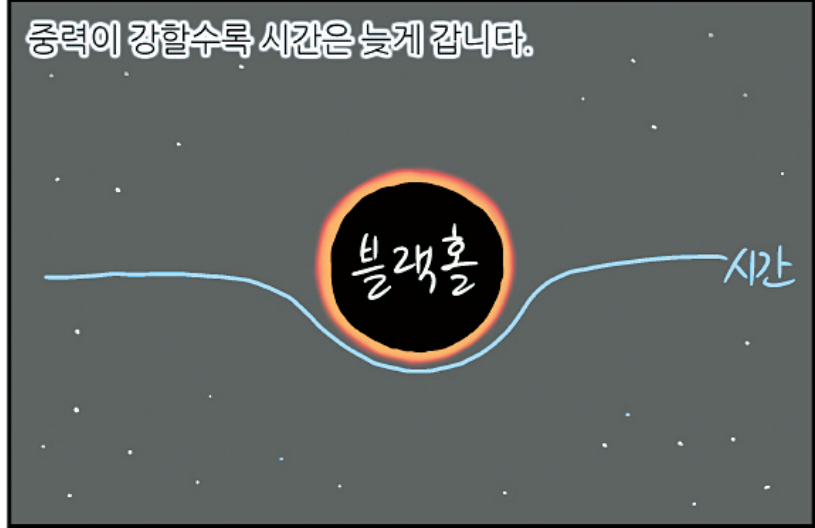
활동 혜택으로는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맞춤형 봉사활동 연계, 봉사활동 활동재료 지원, VMS 봉사실적 관리, 우수봉사단 표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누리집(www.043w.or.kr) 또는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북지정보과(☎043-234-0840)로 문의하면 된다.

북/지/만/평

상대성 원리

이창신 www.bokmani.com



사람에겐 누구나 저마다의 시간과 속도가 있습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제공 서비스'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 발송내용: 도내 사회복지 행사 안내 및 유관기관 공모사업 제공
■ 발송횟수: 주 3회
■ 신청기간: 상시접수
■ 신청방법: '충북복지넷' 홈페이지(www.043w.or.kr) 팝업창 참고

[충북사회복지협의회, 2026년도 유니버설디자인 체험센터 교육 신청 안내]
■ 신청대상: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근무자 및 이용자/회차별 40명 이내
■ 주요내용: 주택체험관, 유디체험관 및 휠체어 체험관 견학 *무상교육
-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입한 거주공간 설계를 통해모두가 불편함 없는 생활공간 체험
- 모두를 위해 디자인 된 UD 적용 일상 용품을 이해
- 이동약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형 체험(불규칙 바닥로, 경사코스 등)
■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전화 접수(T. 043-234-0840~2) *담당자와 일정 조율 후 신청서 제출
■ 참고: https://www.043w.or.kr

[희망나눔 은, 2026년 하반기 희망드림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6. 10. 8.(목)
■ 지원대상: ①고등학생~만 24세 ②소년 소녀가정 청소년, 위기 청소년, 시설 보호 청소년, 자립 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③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1인당 최대 300만원(교육비 지원/자립 지원 중 택1)
■ 신청주체: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시설
■ 신청방법: 온라인
■ 참고: https://www.hopeon.or.kr

[우양재단, 2026년 하반기 '함께한 시간, 오래도록' 어르신 나들이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0. 13.(화)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복지정보 제공

(기관당 최대 2가구 신청 가능)
■ 지원내용: 가구당 25만원~35만원(나들이, 고향방문 여행, 외식, 가족사진 촬영 등)
■ 신청주체: 복지관 및 생활시설, 요양원(개인 운영시설 제외) 추천을 통해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 참고: https://www.wooyang.org
■ 문의: 노인직접사업팀 김대현 팀장(02-333-2855)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수가공모전 '제5회 해미백일장' 개최 안내]
■ 신청기간: ~2026. 10. 16.(금)
■ 지원대상: 사회복지사
■ 공모주제: 내가 사회복지사여서 다행이었던 순간(2000자 이내)
■ 시상내역: 해미 사랑상(1명), 해미 희망상(3명), 해미 용기상(5명), 해미 응원상(25명), 공로상(1명)
■ 신청방법: 온라인
■ 참고: https://www.welfare.net/
■ 문의: 정책홍보팀(policy@kasw.or.kr)

[푸르메재단, 2026년 하나금융그룹 장애아동 및 청소년 재할 보조기구 2차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10. 16.(금)
■ 지원대상: 만 24세 이하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2002. 1. 1. 이후 출생)
■ 지원내용: 1인 최대 250만원-개인별 맞춤형 보조기구(이동 및 자세유지 기구 등)
■ 신청주체: 복지관, 병원, 보조기기센터 등 기관 담당자가 신청
■ 신청방법: 온라인
■ 참고: https://purme.org
■ 문의: 기업협력팀(02-6395-7003)

[한국전력 충북본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 효율 사업 신청 안내]
■ 지원대상: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자활센터, 한부모 가족복지시설(관련 법령에 의거 설립된 시설에 한함)
■ 지원내용: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고효율 기기로의 교체 비용 지원
■ 지원금액: 냉·난방기 구입 제품가격의

70%(부가세 불포함)
■ 지원한도: 시설당 1600만원 * 냉방기·냉난방기의 구입 제품가격 산정 시 기본설치비만 포함(추가설치비 미포함), 지원금은 제품 용량별 지원한도 존재, 지원한도는 매년 경선되지 않으며, 과거 연도 포함 시설당 지원받을 수 있는 교체 한도임
■ 지원기기: 한국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에너지 효율 1등급 고효율 냉방기, 냉난방기, 멀티히트펌프시스템 실외기 3개 품목
■ 신청기간: ~2026. 12. 18.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한전ON' 홈페이지 내 내기별 [기존 및 양식 다운로드] 참조
■ 참고: online.kepco.co.kr

[KBS강태원복지재단, 2026 위기가정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관: 전국 사회복지 관련 비영리 기관·단체(마을 단위 NGO 협약 체결 기관에 한함)
■ 지원대상: 위기상황으로 인해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
■ 지원내용: 위기가정 지원금 지원(1가정당 최대 500만원, 최대 2회 지원 가능), 수행기관 대상 사례관리 지원금 지원(위기가정 지원금의 10%)
■ 지원항목: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교육·양육비
■ 신청기간: 매월 1~15일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 신청방법: 본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업기간: 2026년 2월~12월
■ 참고: www.kbsktw.com

[재단법인 한사랑농촌문화재단, 한사랑 농촌사랑 문화지원 공모]
■ 지원자격: 공모 내용대로 사업 진행이 가능한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지원내용: 농촌 지역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연, 시설 개보수, 환경미화, 편의 물품·시설 확보 활동
■ 응모방법: 이메일 접수
■ 지원금액: 200만원
■ 접수기간: 상시접수
■ 사업시일: 2026년 12월 31일까지
■ 참고: www.myhansarang.org

자원 봉사자 모집

▶ **충북사회복지신문 우편발송 작업**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10.1.~10.30.
전화번호: 043-234-0840

▶ **경로식당 무료급식**
관리센터: 산남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0.1.~10.30.
전화번호: 043-288-1428

▶ **중·고등학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음성꽃동네아동복지시설
활동기간: 10.1.~10.30.
전화번호: 043-877-7713

▶ **장애인디지털리터지 환경정리**
관리센터: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10.1.~10.30.
전화번호: 043-275-7411

▶ **작업활동 보조**
관리센터: 괴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
활동기간: 10.1.~10.30.
전화번호: 043-832-0517

▶ **마을 신문제작 기자단 모집**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0.1.~10.30.
전화번호: 043-266-4761

▶ **행복식당 자원봉사자**
관리센터: 목령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0.1.~10.30.
전화번호: 043-216-3060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2026.9.8.

질병관리청

2026~2027학기 **건강할때더건강하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가지 포인트

1 대상 및 일정

어린이
(2012.1.1.~2026.8.31. 출생자)
· 2회 접종 대상자: 9.21.(월) ~ 1회 접종 대상자: 9.28.(월) ~

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사람)
9.21.(월) ~

65세 이상
(1961.12.31. 이전 출생자)
· 75세 이상: 10.12.(월) ~
· 70~74세: 10.15.(목) ~
· 65~69세: 10.19.(월) ~

3 백신효과

인플루엔자으로 인한 중증질환 **약 60~70% 예방**

질병관리청 <24~25학기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 결과, 고령층에서 중증 질환 예방효과 확인

2 백신 및 접종기관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3가 백신 1회 접종

단, 6개월~9세 미만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자는 2회 접종

접종 가능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에서 사전 확인

4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 국소 이상반응: 접종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통증
- 전신 이상반응: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경미한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도록 합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으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